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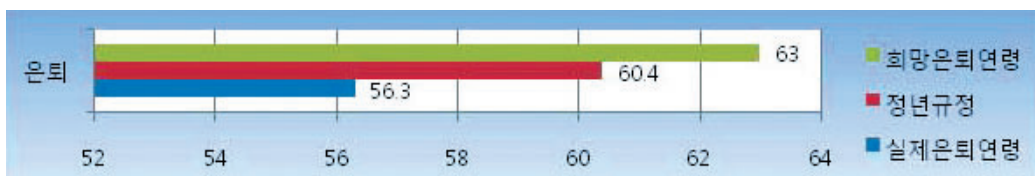
+ 이기욱 · ING생명 FC

은퇴는 인생의 2라운드

은퇴! 이제는 내 친구와 같이 가까이 있는 존재가 되었다. 은퇴는 인생을 제대하는 것이 아니라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입단식이다. 건강은 건강할 때 관리해야 하듯이, 자동차도 주기적으로 잘 관리하면 수명이 길어지듯이, 우리의 인생도 전반전에 잘 관리하고 준비한다면 후반전뿐만 아니라 연장전도 아무 걱정이 없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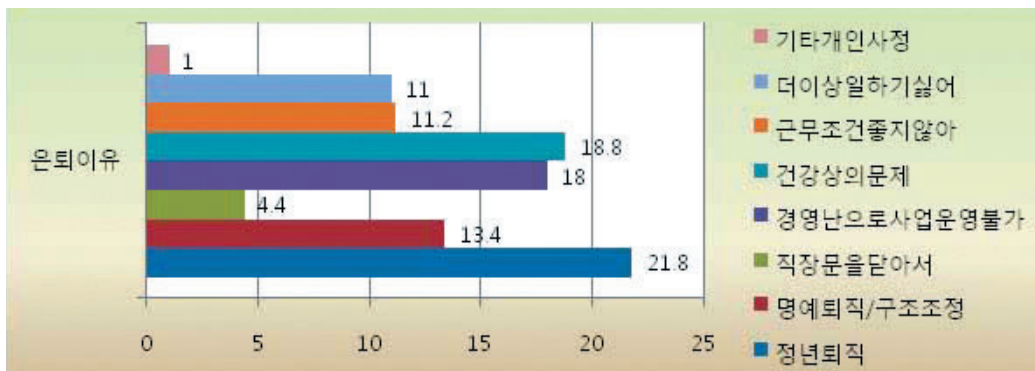
1. 생각보다 빠른 실제 은퇴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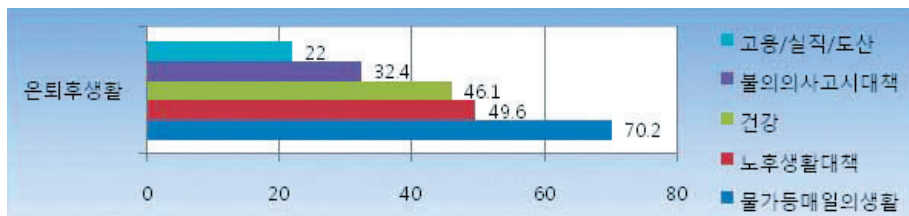
우리나라의 은퇴자들은 실제 정년규정에 비해 상당히 일찍 정년을 맞고 있다. 은퇴자들의 실제 은퇴 연령은 평균 56.3세, 정년규정은 60.4세, 희망 은퇴 연령은 63.0세로 실제 은퇴 연령이 정년규정이나 희망 은퇴 연령에 비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현재 우리나라의 고용불안이 매우 높으며, 정년의 개념이 점차 희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2. 은퇴자들의 은퇴 이유

은퇴자들의 은퇴 이유는 정년퇴직이 21.8%로 가장 많았으며, 건강상의 문제, 경영난, 명예퇴직/구조조정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은퇴 사유를 자발적, 비자발적으로 구분할 경우 자발적 은퇴는 42.0%로 절반 이상의 은퇴자는 정년규정 또는 외부적 요인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은퇴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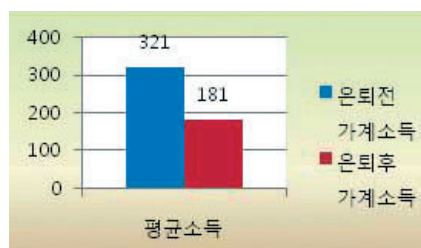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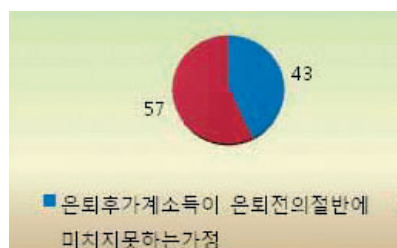
3. 은퇴 후 생활에 어떤 점이 가장 걱정될까요?

국민들은 은퇴 후, 물가 등 매일의 생활(70.2%), 노후생활 대책(49.6%), 건강(46.1%), 불의의 사고 시 대책(32.4%), 고용/실직/도산(22%) 순으로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4. 만족스런 노후 자금 얼마나 필요한가?

은퇴자 가계의 월 평균 지출액은 159만원이며, 기본 생활비가 63%, 의료비가 13%, 저축/투자가 11%, 기타 13%로 나타났다. 은퇴자들의 은퇴 자금 정도의 만족도는 30대 233만원이 만족할 수준이며, 40대는 178만원이 보통, 50대는 133만원으로 불만족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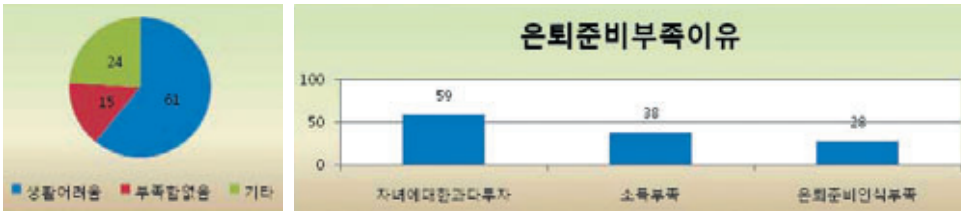
5. 은퇴 후 절반으로 줄어든 수입원에 대한 준비는?

은퇴자들은 은퇴 후 가계소득은 은퇴 전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은퇴 후 가계소득이 은퇴 전 가계소득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비율이 43%로 나타났으며, 은퇴 전 가계소득 평균은 321만원이었으나 은퇴 후 가계소득 평균은 181만원으로 4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퇴자들의 주된 은퇴자산 축적수단으로는 부동산이 76%로 압도적이며, 예금/적금은 6.8%, 퇴직금/퇴직연금 6.0%에 불과한 상태로 은퇴 전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은퇴자산의 부동산 집중도가 높았으며, 은퇴 전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예금이나 개인연금/보험의 비중이 높은 상태이다.

6. 은퇴 준비 충분하십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은 턱없이 부족한 은퇴 준비를 하고 있다. 은퇴 준비 부족으로 생활의 어려움(61%), 부족함 없음(15%), 기타(26%) 순으로 조사되었다. 은퇴 준비 부족 이유는 자녀에 대한 과다 투자가 59%, 소득부족 38%, 은퇴 준비에 대한 인식부족 28%로 나타났다. 은퇴자들이 생각하는 자신의 은퇴 수준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보통이며, 은퇴자의 절반가량은 은퇴 준비와 자녀에 대한 투자가 동일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36%는 은퇴 준비 17%는 자녀에 대한 투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는 자녀 교육에 올인하는 것을 지양하고 자신과 배우자의 노후를 위한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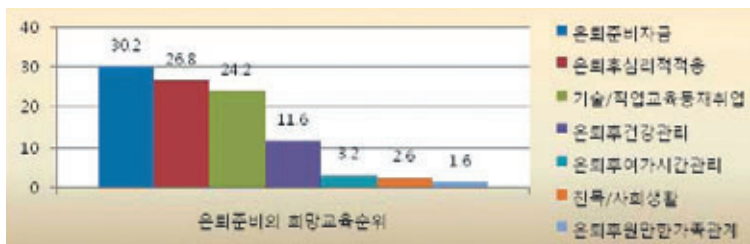


7. 은퇴 준비 언제부터 해야 하는가?

은퇴 준비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모든 것이 시기가 있듯이 은퇴 준비도 시기가 있다. 노후 준비는 미루면 미룰수록 실천하기가 더욱 어려워진다. 결혼하기 이전에 노후 준비를 한다면 부담은 적을 것이다. 그러나, 결혼을 하여 가정을 꾸린다면 생활비용이 늘어날 것이며, 자녀가 생기면 자녀 양육비를 충당하느라 자신의 노후를 위한 준비는 엄두도 못 낼 것이다. 현재 은퇴자들의 3/4은 은퇴 전까지 노후 준비를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50대에 은퇴 준비를 시작한 비율은 16%, 40대 이전에 은퇴 준비를 시작한 경우는 5%에 불과하다.

8. 우리에게겐 구체적인 은퇴 준비가 필요하다.

우리나라 은퇴자들의 은퇴 준비 교육 경험은 사실상 전무한 수준으로, 3%만이 은퇴 준비 교육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퇴자들의 40%가량은 은퇴 관련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며, 희망 교육 내용으로는 은퇴 자금 마련, 은퇴 후 심리 적응, 재취업 관련 교육 등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은퇴 준비도 주먹구구식이 아닌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교육으로 대비를 해야 할 것이다.



마치며

베이비붐 세대는 어떻게 은퇴 자금을 준비할까? 베이비붐 세대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들은 주로 연금을 이용해 은퇴 자금을 준비하고 있었다. 은퇴 자금 마련을 위해 개인연금을 많이 활용하였고, 그 다음으로 퇴직(연)금, 공적연금, 예/적금과 저축성 보험, 부동산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베이비붐 세대 중 약 34%가 아직까지 은퇴 자금을 준비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은퇴한 베이비붐 세대의 경우 약 57%가 충분한 준비 없이 은퇴해 곤란을 겪고 있다. 은퇴를 바로 앞둔 장년층뿐만 아니라 은퇴가 아직 남아 있는 젊은 층 모두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미리미리 노후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첫째, 당장 시작하자. 아직 젊다는 생각으로 망설인다면 당장 시작해야 한다. 지금까지 모아놓은 자금이 부족하더라도 실망할 필요는 없다. 하루라도 빨리 투자를 시작해서 준비기간을 늘리면 적은 돈으로도 목돈을 장만하기 쉽다. 40세 직장인이 연 10%의 수익율로 평균 퇴직연령 55세까지 은퇴 자금 5억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매달 186만원씩 저축해야 하지만, 30세에 시작한다면 월 81만원씩만 저축하면 된다.

둘째, 장기 투자하자. 장기 투자의 장점은 복리효과의 힘 덕분에 더 커진다. 일반적으로 수익율 1% 차이를 별것 아니라고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투자성과가 누적되면 이 차이는 태산처럼 커진다. 특히, 은퇴 자금처럼 장기로 운영되어야 하는 자금에서 이자가 원금에 포함되어 다시 이자를 계산하는 복리효과를 고려하면 그 차이는 더욱 커진다.

셋째, 분산 투자하자. 수익율을 높이고 위험을 최대한 줄여보자는 것이 분산 투자의 목적이다. 안정적인 예금상품에 전적으로 투자하는 것보다 수익율과 위험이 다른 여러 자산에 적절히 분산 투자하면 수익을 추구하는 동시에 위험을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다.

넷째, 소득 중 일부분을 매월 적립식으로 투자하자. 은퇴 자금을 효율적으로 마련하기 위해서는 주식과 같이 위험이 있더라도 기대 수익율이 높은 상품에 장기간 매월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혹시라도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거나 들어놓았던 적금이 만기가 되어 노후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약간의 목돈이 생긴다면 잘 분산된 펀드에 넣어 장기간 운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은퇴자들이 젊은 세대들에게 하고 싶은 은퇴 준비 관련 조언으로는 '은퇴 전에 최대한 자산을 모을 것'과 '노후를 자녀에게 의지하지 말 것'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은퇴 후의 생활에 대한 준비는 그 누구도 해줄 수 없으며 국가도 책임을 질 수 없다. 은퇴 후 필요한 자금은 스스로가 준비하여야 한다. 물론, 노후 준비를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을 것이다. 개인에게 적합한 것을 선택하여 늦지 않게 실천하는 사람이 인생의 노후를 따뜻하게 보낼 수 있을 것이다.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 주지 않는다. 시간은 돈이다. 당신은 지금 은퇴 이후 생활을 위해 얼마나 준비하고 있는가?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것이다. Action Now!

자료 출처

- 2009 생명보험 성향조사, 생명보험협회 저
- 은퇴자의 은퇴 준비 과정 및 생활실태 분석